

▶ 박재천 집행위원장에서 들려보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예술자원, 소리에 덧대

“일반 관객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소리 축제’를 통해 창의적 영감을 받고, 순간순간의 감흥과 정서를 기억해 두었다가 곱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20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소리와 미디어·미술의 결합을 통한 ‘소리의 이미지’를 구현해 내기 위해 재검증을 견고 있었다.

지난 15일 만난 박재천 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전통을 핵심 콘텐츠로 삼고 있는 만큼 전통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여낼 것인가를 늘 고민”이라며 “올해는 전통·전주·전북의 예술자원을 소리에 덧대는 디테일한 작업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관소리다섯바탕 중 한 대목 지역 미술작가 작품 배경으로 소리 이미지, 시각적으로 확장 예술가들, 축제 중요 콘텐츠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힘

이렇게 하면 “관소리다섯바탕 중에서 한 대목이 지역 미술작가의 추상적인 작품들을 배경으로 흐른다거나, 현대미술과 미디어가 결합된 어린이 미디어체험 전시공간에 소리를 틀어 놓는 식”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청각과 시각이 열리고 소리의 이미지로 확장함에 따라, 관객들은 새로운 예술세계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테일의 작업은 예술가가 완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술가가 경험으로 느낀 것을 예술로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본연의 소리이자 예술로서 가치가 있다”며 “예술가들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채우고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 올해 개막공연에 대해선 “소리가 노래(song)으로 바뀌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 뮤지컬 ‘캣츠’의 경우에 있어 일부는 그 내용과 음악은 잘 기억하진 못해도 삽입곡 ‘메모리(Memory)’ 단 한곡을 기억하고 공연을 연상하듯, 관소리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관소리의 완창과 음악적 흐름을 분석하고 완성도를 따지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라 하며, 대개의 사람들은 이미지와 눈대목을 기억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관소리의 어느 한 대목을 발췌하여 이를 레퍼토리로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song의 개념”이라며 “관객들에게 song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를 은연중 받아들이게 함



지난 15일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전통을 핵심 콘텐츠로 삼고 있는 만큼 전통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여낼 것인가를 늘 고민”이라며 “올해는 전통·전주·전북의 예술자원을 소리에 덧대는 디테일한 작업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으로써 스스로 소리를 해석하며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통을 전제로 하며, 정교하면서도 품위 있는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제야행이 지난 16일 열린 공연·전시 등을 끝으로 4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공연.

전주야행, 4개월간의 여정 ‘끝’

공연·전시·체험 등 전주의 멋 관광객들에게 전파 인기 높은 ‘별빛기행’, 천문학 인기강사 탄생시켜

조선왕조본향의 역사콘텐츠를 ‘인류수작’ ‘한국수작’ ‘미래수작’ ‘모두의 수작’ 등 4개의 색선에 담아낸 ‘2017전주문화제야행’이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며 지난 4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주문화제야행추진단이 주관하는 ‘2017전주문화제야행’은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5번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6일 폐막야행에선 다양한 공연 및 전시·체험·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전통의 멋과 문화제에 담긴 향취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경기전을 중심으로 태조로와 은행로의 밤은 빛으로 물들여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풍광을 선사했다. 대형미러에서 쏟아지는 빛의 유영이 화려함과 흥겨움을 채우고, 거리 곳곳에 비치된 어진행렬반차도와 한지등은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졌다.

이날 메인무대인 경기전광장에서 전통음악의 원류인 굿 음악을 현대화한 ‘우리소리 바라지’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와 ‘농악’을 만날 수 있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를 연출했다.

오목대에서는 중견예술인이 펼치는 서예와 무용퍼포먼스, 관소리와 해금, 아쟁, 피리의 선율을 통해 문화도시의 정체성과 전통의 맵시를 선보였다.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된 ‘기능분야 무형문화제 토크콘서트’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조충익 명장(선자장)과 최대규 명장(나전장)을 초청한 자리. 장인들의 작품을 통해 민족의 열과 뿌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제야행만의 볼거리로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별빛기행’은 천문학 인기강사를 탄생시켰다. 천문학강의콘서트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태조와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경이로운 인연을 내용으로 조선역사와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우수성을 이야기로 펼쳐낸다. 회 차 마다 만식을 기록하며 문화제야행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이라는 성과와 함께 유료화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주문화제야행의 소야행 프로그램 ‘별빛기행’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의 진행을 앞두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전자해금 ‘아랑이’ 쇼케이스 25일 개최

전통과 IT 융합으로 탄생한 탄소전자해금 ‘C-아랑이’의 시연회가 오는 25일 오후8시 한벽극장에서 열린다.

‘C-아랑이’는 탄소와 융합하여 누구나 쉽게 분해 및 조립할 수 있으며, 부품교체가 용이한 특징을 지닌 전통전자악기다.

이는 기존 국악기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존 국악기는 날씨나 환경에 민감하여 외부공연 등 장소의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C-아랑이’는 날씨나 음향출력 문제를 해결해 언제 어디서든 음향의 변화가 없다는 게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아랑이의 개발은 창업기관들의 협업에 따른 것이다. 전북창조혁신센터에서는 ‘8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해금에 탄소를 접목하고 K-ICT 창업멘토링센터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했다.

이 약기의 탄생은 유진박의 전자바이올린 개발자이자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주)카본플레이의 유재업 대표가 이끌었다. 대구 출신인 그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입주 기업으로 선정돼 전주에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